

조선

Issue Comment

Overweight

핵추진잠수함 십년지대계

국방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2026년 5월 26일, 국방부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은 '장보고 N'으로 명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 건조될 예정이다.

- 1)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교체 최소화를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것
- 2)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전성을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건조될 것
- 3)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
- 4)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관리/해체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
- 5) 30년대 중반에 1번함 진수,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

핵추진잠수함 십년지대계, 이제 시작

핵추진잠수함은 조선/방산분야를 통틀어 개발/건조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핵심 전략자산 중 하나이다. 선박의 건조기간은 상선->수상함->잠수함 순으로 길어지는데, 후자로 갈수록 설계 및 개발의 난이도가 높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운전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며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사용의 특성상 일반 잠수함보다도 건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무기체계와 선박을 통틀어 가장 전력화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제시한 진수 목표는 지금부터 십년 후인 30년대 중반이며 이는 장보고-III급의 과거 건조 Timeline에 비추어 봤을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핵심인 핵연료 처리 기술 및 원자로 소형화 기술 등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추정되며, 이 경우 설계 및 개발기간은 생각보다 단축되어 목표 달성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개별기업 영향은 아직 일러, 그러나 한국 조선업에 분명한 수혜

이제 개발계획이 발표된 만큼 개별기업의 수혜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건조 계약은 빨라야 29~30년 정도로 예상되며, 실적화가 시작될 착공(S/C)시점은 31년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수상함이나 잠수함과 달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의 특성상 한 기업에 개발 및 건조를 모두 맡기기보다는 공동개발 및 공동건조 또는 분산건조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며, 기술적으로도 잠수함 기술에 우위를 가진 한화오션과 원자로 기술에 우위를 가진 HD현대중공업의 협업이 필요한 바 중국에는 두 회사 모두의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배수량 3,600톤급인 장영실급 잠수함의 척당 건조비용이 1.1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5~6,000톤급으로 예상되는 장보고N의 건조 비용은 척당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건조계약과 S/C까지 3~5년 넘게 남은 이상 당장 수치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디젤잠수함 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건조, 총수명주기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가라는 점은 향후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 등 수출 사업에 한국과 한국 조선사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분명한 요소이다. 핵추진잠수함 계획의 진척과 함께, 곧 발표될 CPSP 사업자 선정에서 대한민국의 승전보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시점이다.

[조선/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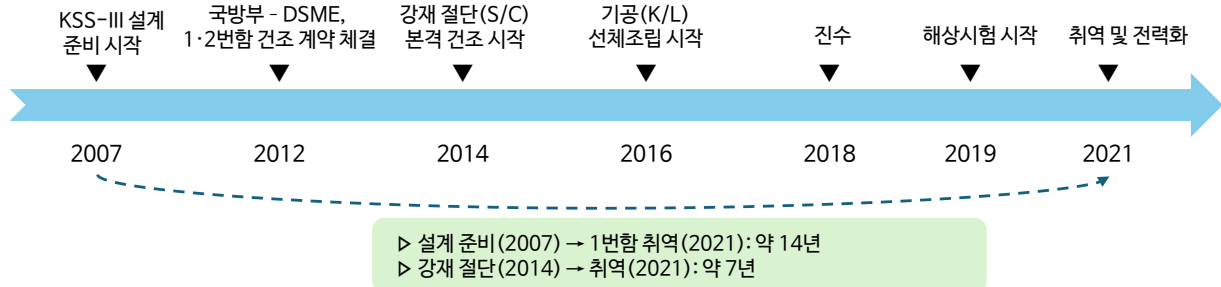
변용진

2122-9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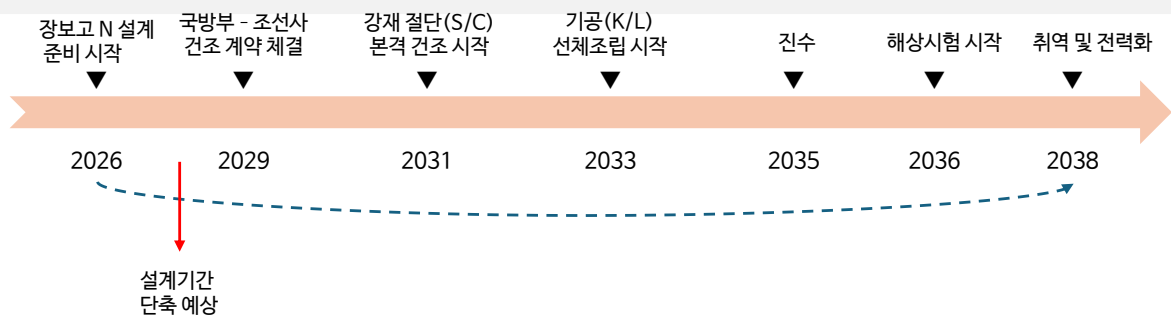
Yongjin.byun@imfnsec.com

그림1.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과거 건조 Timeline 및 핵추진 잠수함(장보고 N) 예상 Timeline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 Batch-I) 1번함 건조 Timeline



핵추진 잠수함(장보고 N) 예상 Timelin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표1. 핵추진잠수함 추진 Timeline

일시	내용
25.10.29.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SNS,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발언 한국이 기존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선언
25.10.30.	트럼프, 핵추진잠수함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 구체적 적시
25.11.03.	美 국방장관, 트럼프의 승인을 지지하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언
25.11.04	韓 국방부, 첫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후반 진수 예정 언급 미국과 협의를 통해 잠수함용 핵연료(농축우라늄) 공급을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
25.11.05.	韓 국방장관, 필리 조선소 현재 핵잠 건조할 기술/인력/시설 부족, 언급하며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발언
25.11.14.	한·미 공동 팩트시트 공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승인 양국이 함께 잠수함 연료(농축우라늄) 조달 경로를 모색한다고 명시 韓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에서 선체·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작, 미국은 연료·일부 핵심 기술을 공급, 협력이 필요하면 미 조선소와 부분 모듈 협력은 가능하지만, 건조 장소의 기본 전제는 '한국'이라 단언
26.05.26	韓국방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 (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6-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8.2%	11.8%	-